

무주, 태권도 성지 거듭나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국도 5개년 계획 포함 무주~설천 간 10.9km 구간 사업비 1380억원 투입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민자 유치 기반 기대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꼽히는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 간 국도 30호 10.9km) 4차로 확장사업이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확정 고시)되면서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 과 민자 유치 등 나머지 숙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태권도원 방문객들의 안전과 접근성을 담보한 태권도원 진입도로 4차

로 확장사업(2017~2021)은 태권도원 활성화와 성지화를 위한 기본여건으로, 총 사업비 1,380억 원이 투입돼 무주읍 오산리에서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까지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무주군은 이 사업이 태권도원 방문객 증가에 따른 교통 문제들을 해소하는 한편, 충청·경상권과의 이동거리도 단축(3.6km 정도)해 불류비

절감효과를 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 지역과의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내·외 행사들이 태권도원에 집중되고 있고 교육과 연수, 캠프, 체험 등을 위해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들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진입도로의 폭이 좁고 골목이 심해 안전에 대한 부담이 항상 큰 상태였다"며 "4차선 확장으로 안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의 발판과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권도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돼서 상징지구 건립을 위한 기부금 조성 과 국가예산 지원이 확대되고 더불어 태권도호텔이나 태권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민간 자원을 또한 앞 다투어 태권도원으로 향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군은 그동안 태권도원 진입도로 4차로 확장사업이 국도 5개년 계획 대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뛰어왔으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을 찾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태권도원 전경

국토부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

장수~장계·임실~장수간 국도 시설개량사업 확정

장수~장계간, 임실~장수간 국도 시설개량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확정됐다.

장수~장계간(국도19호선)은 장수군을 경유하는 대전~통영간, 익산~장수간,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통행차량의 국도19호선 유입에 따른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 흐름 정체,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구간으로 장수군

은 335억원을 투입해 계남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19호선 연장 L=6.0km 대해 소재지 우회도로 설치 를 골자로 하는 시설개량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임실~장수간(국도13호선)은 해발 1,150m의 팔공산 자락의 험준한 지형을 통과함에 따라 중환자 급구급 등 에 따른 선형불량 구간이 많아 겨울철 결빙에 잦은 차량 미끄럼 사고 발

생, 운전자 시야불량에 따른 사고위험 등으로 운전자들이 통행을 기피하는 구간으로 군은 연장 L=22.2km에 구간에 총사업비 1,62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그동안 해당사업이 제 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용득 장수군수를 중심으로 지난 2014년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익산국도관리청에 수십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확정돼 열악한 도로망 확충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국토균형발전 및 인근 지역간 활발한 교류증진과 국도를 통행하는 주민 및 외부 이용자들의 교통편의 및 안전한 도로환경개선이 기대된다"며 "해당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8개 자매도시 찾아 홍삼축제 홍보 내달 12일 개최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2016 진안홍삼축제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해 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2개 팀의 홍보방문단을 구성하여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경기지역의 서울시·서울 강동·서울 도봉·서울 은평·경기 안산·인천 동구를 직접 방문해 간의 관심과 지

원에 감사함을 전하고 10월 12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진안홍삼축제에 자매도시 관계자들에게 초청사항을 전달하고 자료를 배포하는 등 축제홍보활동에 주력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진안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영남권 자매도시인 부산 북구와

대구 남구를 2차로 방문해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자매도시에서 각자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에 축제와 같은 행사, 특산물, 관광지 등의 정보를 상호 게재하자는 진안군소식지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향후 소식지 교류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급 한우도 먹고~ 축제도 즐기고~ 내일부터 장수한우마당 운영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엔 최고급의 장수 한우를 값싸게 먹는 즐거움이 있다.

장수군은 축제기간인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최고급 장수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시식할 수 있는 장수한우마당을 운영한다.

군은 이번 축제기간 전주 대형 할인 매장에서 한우 1++ 등급 12,500원/100g에 판매되고 있는 등심을 장수 한우 1++ 등급으로 등심을 9,300원/100g에 판매하는 등 한우 모든 부위를 시종보다 약 25~4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셀프식당을 설치하고 장수한우 직거래장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 올해도 축제 참가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한우 판매장과 셀프식당으로 운영되는 장수한우마당은 축제기간 내



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한우 경력가격이 전년 동시기 대비 10% 올랐음에도 장수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제 방

문객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한우고기를 맛보게 하기 위해 한우 소고기 값을 과학적으로 인하 판매한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대중교통수단 '부름부름' 브랜드.

부르면 부름하고 달려간다

완주군, 대중교통 브랜드 '부름부름' 구축

완주군 대중교통수단이 '부름부름'이라는 브랜드로 주민의 발이 되어준다.

군은 완주군민의 대중교통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인 '부름부름'을 만들고 차량 외부를 디자인하여 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차량 외부를 디자인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대중교통수단 브랜드 '부름부름'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포용한다는 복지의 개념을 물에 비유해 '파란색'으로 표현했다.

또한 픽토그램(그림)을 강조하고, 글씨를 크게 하여 어르신들이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중교통수단 디자인 방향은 예쁘고 아름다운 미학적 접근이 아닌, 철저히 주민 편의를 위한 복지적 접근에서 진

행되었으며, 픽토그램(그림)과 글씨를 강조하기 위하여 차량 전체를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밍 '부름부름'은 완주군 교통정책을 상징하며 '부르면 부름하고 달려간다'는 의미로 현재 특허청에 업무표장 출원을 한 상태이다.

새롭게 디자인된 '부름부름' 운행 차량은 완주군 마을버스 3대, 수요응답형버스(DRT) 3대, 장애인택시 6대, 택시 128대이다.

이후에 건설교통과장은 "시내버스는 완주군 관내 차량이 아닌 전주시 버스가기 때문에 이번 완주군 대중교통수단 브랜드구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완주군 관내 버스타사 설립 후 독자적 시내버스 운행과 더불어 '부름부름' 브랜드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농업 미생물 '인기'

인삼 등 다양한 분야 활용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에서 보급하고 있는 농업 미생물이 농가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삼, 원예, 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농업 미생물이 8월말 공급량은 130톤으로 작년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인삼 예정지 토양에 미생물을 살포하면 인삼 뿌리의 활력이 좋아지고 적변삼 발생을 줄여주게 되어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 8월부터 인삼 예정지 관리 및 축산 농가중심으로 미생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생물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삼, 고추 등 뿌리의 활력이 많이 떨어

져 있는 작물에 희석해서 살포하면 광합성이 촉진되고 병해충 저항성이 커져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삼예정지 및 감장 채소에 2주단위로 2회 이상 미생물 살포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수요에 맞춰 배양장비를 보강하여 연간 공급량을 4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영화 소장은 "친환경 농업을 위한 미생물 공급 확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액상 미생물뿐만 아니라 분말 미생물도 개발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 배양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팀장 전체회의 개최

완주군이 국 체제 개편 이후 중간간부 110명의 팀장들과 이례적인 소통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완주군은 이례적으로 중간 간부인 110명의 팀장들과 실무 토론회를 개최하여 120여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토론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6기 2년,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팀장급 중간 핵심 리더들이 본인의 업무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2년을 설계하고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완주군정의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또한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의 간부

회의 형식에서 벗어나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핵심 현안·쟁점사업을 팀장급 실무자들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서로간의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팀장급 실무자들이 심도있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팀과 부서의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이 었다"며, "완주군의 행정 패러다임을 협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군정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요 현안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특별블로그

무주군민 화합의 날 행사 성료

무주군민 화합의 날 행사가 지난달 31일 무주반딧불축제장 주무대(예체문화관 주차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읍을 비롯한 무주군 6개 읍면 주민들의 친목을 도모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민속놀이 한마당(웃놀이, 딱매치기, 제기차기, 투호)을 비롯해 무주와 반딧불이, 환경 관련 문제들을 함께 풀어 보는 우리군 알기 OX 퀴즈, 부남면 주민들이 준비한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그리고 무주군민 노래자랑 분선 무대가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황정수 군수는 "우리 모두의 자랑 반딧불축제 기간에 함께 즐기며 웃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돼 가슴이 벅차다"며 "서로 의지하면서 위로받으시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도 충전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적성면 김순심 씨(54)가 제32회 무주군민의 장 표창장을 받아 박수갈채를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사과 사이버 팜 수확체험

장수군은 올 초에 사과나무를 분양받은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수사과 사이버 팜 수확체험을 실시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홍보 수확시기에 맞춰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기간인 2일부터 4일까지 장수사과 수확체험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수사과 수확체험장은 장수사과시험장과 관내 사과재배 선도농가 13개 농가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홍보수확체험에 이어 오는 10월 하순경 후지수확체험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수사과 사이버 팜은 매년 초 인터넷(www.myapple.go.kr)을 통해 선착순 분양되며 주당 100,000원에 30kg을 수확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올해도 맛있는 사과를 도시소비자들이 맛볼 수 있도록 사과재배농가에선 팜 출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수 청정지역에서 온 가족이 함께 풍요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내일 장수 한우랑 사과랑 전국지구력승마대회 열려

전국지구력승마대회 열려

제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전국지구력 승마대회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장수승마장과 승마로드 특설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한승마협회 주관하고 장수군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경기는 장애물 경기와 지구력 경기로 장수승마장과 승마로드 특설경기장에서 각각 치러지며 마필 180두와 35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화유치와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 운영으로 엘리트 승마와 대중 승마를 동시에 체할 수 있는 말의 고장으로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완주군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

군은 오늘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군청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친절도 평가는 완주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친절도 조사는 방문 평가와 전화 평가 두 가지 방식으로 공직자가 민원을 대할 때의 태도, 말하는 자세, 업무수행능력, 인사 등 다각적인 방면에 걸쳐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 하고자 운영 중인 '군민소통 공감단원'을 활용해 군민의 입장에서 공직자를 평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완주=이종복 기자